

## 4》 국제캠 총학생회장 연임



## 8》 열리지 않는 전학대회



##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수강신청기간 : 2016.12.14(수) 10:30 ~ 12.15(목) 17:00  
등록금 납부기간 : 2016.12.16(금) ~ 12.20(화) 16:00  
등록방법 : 본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 “박근혜 퇴진·성역없는 수사 촉구”

###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김수진 기자 sujin\_kim14@khu.ac.kr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지난 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정문에서,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중앙도서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공동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캠퍼스가 모두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이후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jtbc는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보도하며 ‘최순실 게이트’라는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유례없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에 각종 의혹들이 추가로 쏟아져 나오는 등 파문이 거세지자, 주요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 100여 개가 넘는 대학가에서 시국선언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우리학교 또한 사태의 공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해 학생들의 연대서명, 시국선언을 시행하며 동참했다. 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지난달 26일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대통령이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26일 질문지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우선 수렴한 후, 28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립해 이번 사태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격려하는 입장표명문을 밝혔다.

### 양캠 공동 시국선언문 발표 국제캠 늦은 공지는 아쉬워

본격적인 시국선언에 앞서 양 캠퍼스 총학은 시국선언에 동참할 학내 개인 또는 단체 연명을 함께 받았다. 서울캠 총학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명을 받았으며, 28일 정문에서 시국선언 참가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제캠 총학도 공식 페이스북에서 30일부터 31일까지 서울캠과 동일한 연명을 받았다.

그러나 국제캠 총학은 지난달 31일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이 사회함에 따라 시국선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공식 비대위를 조직했다. 조중언(산업경영공학 2011) 비대위 위원장은 “비대위 활동을 통해 사태 해결 촉구에 더 많은 학생과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1일 마감된 연명은 총 44 개 단체와 1,809명이 참여로 마무리되며 많은 학내 구성원들의 목

소리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1일 서울캠 총학은 정문에서, 국제캠 총학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양 캠퍼스 총학은 공동 시국선언문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켜온 경희의 이름으로 함께 행동할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퇴진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캠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후마니타스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여러분들은 역사의 격동한 가운데 있다. 풍랑 속에서는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강명규(행정학 2016) 군은 “더 이상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부모님과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들딸과 후배가 되자”고 발언했다.

### 교수·학생 자유발언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

학생과 교직원의 자유발언 이후에는 약 600명(경찰추산 400명)의 인원이 정문을 출발해 청량리 광장까지 약 2km 구간을 30여 분간 행진했다. 행사 이후 서울캠 총학 정주희(사학 2012) 회장은 “피켓을 400장 준비했는데 그 이상으로 와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 박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제캠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에 자유발언자로 나선 고수빈(컴퓨터공학 2016) 양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것은 권력과 부가 아니다”며 이번 사태를 비판했다. 또 다른 자유발언자 허지윤(연극영화학 2015) 양은 “대통령의 무능력함이 곧 국민의 무능력함은 아니다” 라며 “우리가 무능력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유진(국제학 2015) 부위원장은 “진정한 애국이란 대통령이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국가’를 지지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권, 정부가 아닌 진정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위해 함께 행동하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제캠 총학 김병경(체육학 2009) 회장을 향해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의 중요성을 가벼워 여긴 것이 아니냐”며 시국선언을 앞두고 회장직을 사퇴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기도 했다. 또한 자유발언자로 나선 이현지(스페인어학 2016) 양은 지난 달 28일 비대위가 SNS를 통해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36명의 비대위 구성원 중 시국 선언에 절반도 채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번 사태와 운동에 관심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Newsmaker

팟캐스트 ‘책이랑 톡톡’ DJ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싶은 DJ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 독서토론 팟캐스트 ‘책이랑 톡톡’은 책 한권을 읽고 다양한 주제로 토론한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DJ들의 말을 듣고 있자면 2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이들의 방송은 청취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애청자를 늘려가고 있다. 6명의 DJ 중 ‘고래’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욱(연극영화학 2011) 군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 군은 어릴 적 라디오를 즐겨 듣는 ‘라디오 키드’였다. 고민거리가 있을 때에는 라디오에 사연을 제보했다. 김 군은 “라디오 진행자가 내 사연을 읽으면 굳이 많은 조언을 해주지 않더라도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고 위로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고민거리가 공유되는 데서 안정감을 느꼈다. 결국 사람들에게 고민거리를 말하고 들으며 ‘소통’하는 일은 그가 하고 싶은 일이 됐다.

라디오 DJ가 될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주로 연예인이나 아나운서들이 라디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라디오 DJ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공유 할 수 있는 ‘팟캐스트’에서 청취자들과 소통하기로 했다.

지난 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김 군은 친구 3명과 모여 단기적으로 고민상담 팟캐스트를 진행하다 학기가 시작되고 그만두게 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인터넷 카페에서 ‘책이랑 톡톡’의 새로운 DJ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김 군은 “팟캐스트와 독서토론 모두 흥미가 있던 분야라 시작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책이랑 톡톡’은 5개월간 진행하며 ‘채식주의자’와 같은 소설에서

‘자본주의 역사 바로알기’ 같은 정치·사회분야 저작까지 다방면의 책을 소화하며 생각의 깊이도 깊어졌다. 또한 꾸준히 책을 읽고 그에 관한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날이 성장해가는 기분도 느끼게 됐다. 김 군은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책이랑 톡톡’을 통해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진지한 주제이지만 무겁지 않게 유쾌하게 풀어나가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팟캐스트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배우고 있지만, 아직은 학생 신분이라 학업과 방송을 병행하기가 쉽지 만은 않다. 김 군은 “시험 기간에 700쪽 정도 분량의 책을 500페이지 까지만 읽고 토론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방송을 완벽히 못했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과 청취자들의 반응은 그에게 원동력이 된다. 김 군은 “친구들이 방송에 대해 이야기 해주거나 방송에서 추천해준 책을 읽었다고 말할 때 뿐만 아니라 청취자 분들도 정성스럽게 감상평과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면 큰 힘이 된다”라고 말했다.

고민상담부터 독서토론 팟캐스트까지 진행하며 이루고 싶은 목표도 생겼다. 김 군은 “어렸을 적 라디오에 보냈던 사연을 읽어줬던 DJ처럼 나도 팟캐스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이나 행복을 전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 군은 “사람들을 힐링해 줄 수 있는 시를 소개하는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과 행복을 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 알림

###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hunews/>
-  페리터리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 전문가 칼럼

###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고창근(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7면



## 시선

## 사설

유례없는 사건,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길

국제캠퍼스의 총학생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회장직을 중도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상황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학칙 상 위법 사항은 아니라지만 애초에 그 학칙이 회장직 연임과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포괄하지 못하는 느슨한 규정임이 드러나면서, 제도적 위법성 여부보다는 개인적 진정성과 제도보완의 필요성 차원으로 논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총학생회장직과 그 임기에 대한 김병경 전 회장의 태도에 대한 것이다. 현재 제48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당초 내걸었던 공약 중 많은 부분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뽑아준 학생들에게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양해의 과정도 없이 재선을 위해 현 회장직을 중도에 포기하는 행위가 과연 유권자에게 신뢰받을 만한 일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진다.

두 번째로 지적되는 사항은 차기 총학 선거를 주관하게 될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위원장이 김 전 회장의 러닝메이트였던 현 부총학생회장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권력이 차기 권력을 선출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뜩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던 이 구조가, 올해에 중선관위 위원장과 특정 후보가 개인적·정치적 사적 관계로 엮이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면서 본격적인 공정성 논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올바르게 관측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헌회의 의의 사례를 경유하는 것이 유용해 보인다. 현대 대통령제를 탄생시킨 1787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는 대통령의 임기와 재임 문제를 다루면서 이를 대통령의 독립성과 책임정치의 실현여부와 맞물린 사안으로 파악했다. 그들은 만일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불허된다면 유능한 인물이 국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덜 유능한 인물에게 모든 권한이 이양될 것을 우려했다. 또 만일 대통령을 입법부가 선출하게 될 경우 재임이 허용된다면 대통령과 입법부는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공모할 수 있으리라 우려했다. 55인의 제헌회의 대표들은 이러한 고민 끝에 대통령이 무능한 경우를 대비해 임기를 짧게 하는 한편 유능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재임을 허용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오늘날 미국 대통령제의 기틀을 완성했다.

이를 현재 국제캠퍼스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결국 상당한 수준의 제도적 보완과 조직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임이 드러난다. 먼저, 별도의 연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현재의 학칙으로는 현 총학 회장의 연임 시도 시 필연적인 업무공백을 수반하게 만든다. 때문에 현행 학칙에 대한 세밀하고 정지(精緻)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다음으로, 현재 권력이 차기 권력 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현행 중선관위 시스템은 유권자에게 현재 권력의 유지를 위해 중선관위와 특정 후보가 공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 중선관위를 일반학생 등 총학 집행부 외부에서 초빙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모 학과 교수 성폭력 의혹  
수업은 그만둔 상태

미디어 여론동향 2016.10.17 ~ 11.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우리대학 모 교수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오랜 기간 받아왔다는 피해자의 글이 SNS에 게재됐다. (1보) 교내 교수 성추문 논란/대학주보 온라인, 2016.10.26) 피해자 A씨는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의 처제로, “28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했고, B교수의 학위논문을 대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교수는 SNS를 통해 설명으로 반박 글을 올린 상황이다. A씨는 B교수를 유사강간 및 폭행, 학대, 강도 등에 의한 현금 갈취로 고소를 접수한 상태다. B교수는 해당 사건 언론유보에 대해 협박 및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고발했다. 우리학교 감사행정원은 B교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B



## 이 주의 주제 - 총학생회장 사퇴

## 어제의 회장이 오늘의 후보자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정치권에서 재선을 위해 임기 중에 직위를 버리는 경우는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이다. 실제로 작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시기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 항간에선 김 전 대표가 대선 행보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輿論이 나온 바도 있다. 대표가 물러난 집단에는 혼란이 불가피하다.

우리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김병경 회장이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퇴서를 올리고 돌연 사퇴했다.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김 회장이 차후 선거본부에 참여하는 것인지, 직접 재출마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됐다. 의문은 바로 다음 날 풀렸다. 김 전 회장은 Re:action 선거본부의 총학 회장 후보자로 등록했고, 학생 사이에선 새로운 파장이 일었다. 게다가 임기와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겹쳐 김 전 회장은 임기의 약 6분의 1 가량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총학생회장이 연임을 시도한 경우는 우리학교 예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장의 임기와 지위만을 보장하고 있을 뿐, 연임 또는 사퇴에 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김 전 회장의 행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후 선거과정에 대해 일각에선 의심이 일고 있기도 하다. 하루 만에 총학생회장에서 후보자 신분이 된 김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게 될 선거에서 중선관위장을 맡는 이는 48대 총학에서 김 전 회장과 일했던 박수지 부회장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사퇴 이후 회장 업무를 박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선관위장을 맡는 것도 학칙에 부합한다. 역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이 처음으로 총학회장에 도전했던 지난해 선거 당시, 모호한 선거세칙으로 인해 공과대학 제1투표소, 국제경영대학 투표소 무효표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중선관위의 장을 맡은 47대 총학 김용석 전 회장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인수인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김병경 전 회장은 사퇴 전까지 선거세칙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선거에서 불거졌던 선거시행세칙 문제와 협 김 후보자가 일으킨 파문은 학칙의 혼란이다. 학칙 상의 개정을 통해 중임·단임 여부를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넘어 연임 시 후보자와 중선관위의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시스템의 보완 없이는 중선관위와 김 후보자 간의 의혹은 계속될 수 있다.

‘진정성’의 의미를  
알고는 있는가

## 세시봉

김도연 (편집장)



비선실세 최순실 사태가 벌어진지 2주가 지나간다. 무수히 많은 대학과 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시국선언을 진행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하루하루 수많은 언론을 통해 뉴스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더 큰 자고감에 빠지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이러니하게 이번 사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이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박 대통령의 녹화사과 영상과 국민대답화를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다.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한 채 동정과 연민으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이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은 수많은 언론사의 의혹제기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을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사과 영상을 통해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겠다고 나왔다면 이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헤아리지 못한 채 단순 ‘일부 언론’이라고 한정시켜 버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논란을 뒤를만한 큰 이슈를 또 다시 들고 올 것이라면 것을. 박 대통령은 JTBC의 의혹 제기 후 곧 바로 개헌이라는 논의를 들고 온 것과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 강제 집행이라는 것을 이슈화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돌리지 않자 강제 집행은 유족과 합의로 진행하지 않은 것처럼 덮어졌고, 개헌이라는 논의는 곧 바로 사그라들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청와대에서 굿 했다고 하는데, 이는 분명이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어떻게 한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최순실이 검찰 조사에서 대역을 썼다’, ‘곰탕을 먹은 적이 없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의혹과 농담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인가.

또한 우리는 알고 있다.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다.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무릎 쓰고 지금에서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점이 감사할 정도이다. 이번의 사태는 박 대통령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국민의 뜻이 한 곳으로 모여 있는 지금,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이뤄져온 모든 부조리를 반성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때이다. 또 다시 국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시기다. 이번에도 비선실세에 관련된 문제들이 ‘국민들은 개, 돼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게 될지 아니면 드디어 국민의 뜨거운 맛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 기회를 또 다시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알림

## 대학주보에

##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http://www.mediakhu.ac.kr/khunews/inform_us_list.asp)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해경 | 편집장 김도연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3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대덕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 ‘취업 시 출석 인정’ 세칙개정으로 조기취업자 구제방안 마련돼

### ‘취업계’ 부정청탁 문제

권유진 기자 hahayj123@khu.ac.kr

지난 4일,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취업계’가 부정청탁으로 간주돼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받을 뻔한 조기 취업자들의 졸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면서, 대학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인한 대학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인정’에 관한 것이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는 조기 취업으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도 학점을 인정해주던 이른바 ‘취업계’ 관행이 학점 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해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로 부정청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9월 26일 조기 취업자의 학점 부여 관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각 대학에 안내했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취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이수 인정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 학칙에 따르면, 6주 이상 결석하면 낙제 학점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10월 중순 안에 각 대학 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조기 취업자들에게는 무조건 F가 부과돼 졸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필요했다.

우리학교 교무처와 학사지원과는 취업

계 관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하고,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 후에 특례 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19일, 교무처는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고, 지난 4일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 12조 1항 8번에 근거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시행세칙’이 제정됐다. 즉, 출석인정에서 결석계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총장이 허가한 사유 중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이 신설되는 것이다. 세칙 적용 대상자는 마지막 학기 등록자로서 당해 학기 수강으로 졸업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취업한 자를 원칙으로 하지만,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인 사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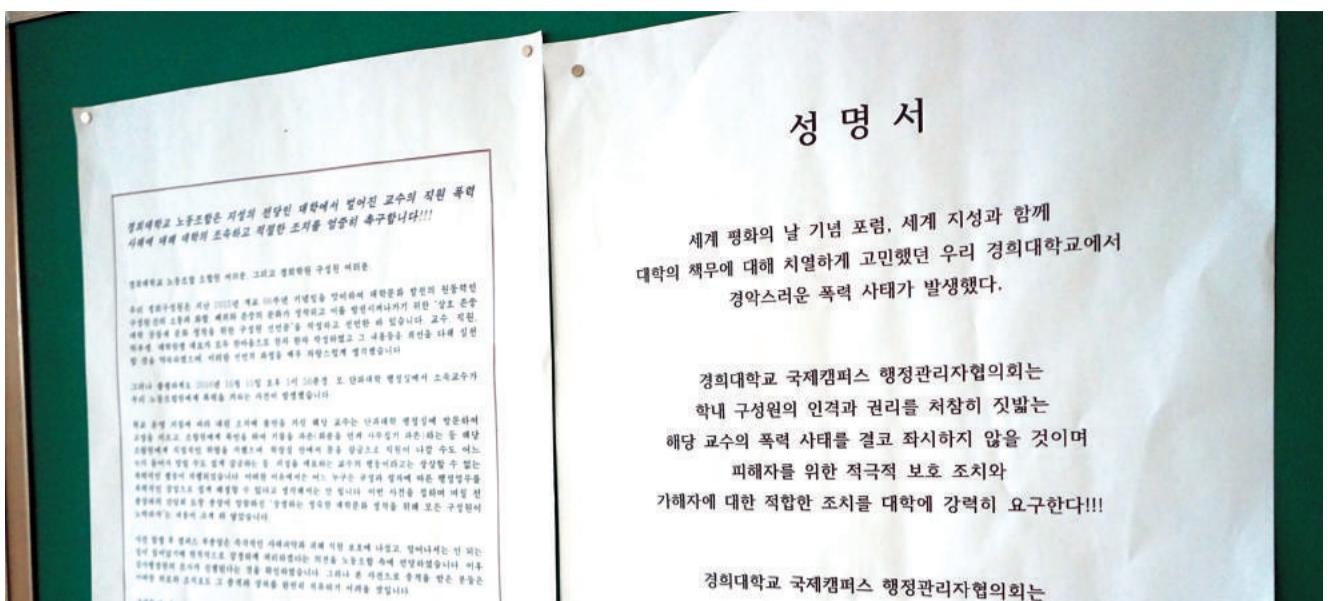
이 세칙의 적용을 받아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석인정신청서와 수강신청 확인서, 재직증명서와 4대보험 가입서가 필요하다. 출석인정은 재학 중 최대 1개 학기만 가능하다.

취업진로처 측은 “취업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세칙이 제정되어 다행이다. 학생들이 걱정 없이 취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세칙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를 기준으로, 조기 취업자들의 출석이 인정된다. 조기 취업한 4학년 학생 중 한 명은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까 마음 졸이던 날들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다”는 소감을 전했다.

세칙 제정으로 취업계를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겠지만, 수강 신청이나 학점 인정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부정청탁 금지법에 걸리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어 학교 측의 확실한 대안이나 입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학점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 ① 학생은 사유발생 즉시 각 담당교과목 교·강사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학생은 출석인정 신청서류를 사유발생 후 10일 이내에 소속 학과장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 원본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교·강사에게 제출한다.
- ③ 교·강사는 신청서류승인후 성적평가를 위한 준수사항(과제, 시험, 기타 등)을 학생에게 안내한다.
- ④ 학생은 교·강사가 제시한 과제 제출 및 시험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은 학기말(기말시험 전주)에 출석인정 증빙을 위한 서류를 각교·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교·강사는 출석인정 증빙자료 및 제준수사항의 시행여부를 평가하여 출석을 인정한다.



### 성명서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포럼, 세계 지성과 함께 대학의 책무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우리 경희대학교에서 경악스러운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행정관리자협의회는 학내 구성원의 인격과 권리를 치하하지 않도록 대학 교수의 폭력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적합한 조치를 대학에 강력히 요구한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행정관리자협의회는

직원노조와 국제캠퍼스 행정관리자 협의회는 이번 폭력 사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 생명과학대학 교수 직원에게 폭언 공사중단 불만… 감사원 조사 중

### 국제캠 직원 폭행 사건

정혜빈 기자 hb0204@khu.ac.kr

지난 달 13일 우리학교 노동조합은 “지성인 전당인 대학에서 벌어진 교수의 직원 폭력사태에 대해 대학의 조속하고 적절

한 조치를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10월 10일 모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소속 교수가 노동조합원(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과장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제캠 행정관리자 협의회도 18일 “해당 교수의 폭력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대학에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당시 현장 목격자들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 오후 3시 50분 경 자신의 실험실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해당 교수는 생명과학대학(생대) 행정실 직원에게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실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생대 학장실로 들어오게 하여 일방적인 폭언을 계속했다고 한다. 또한 화분을 책상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위협을 가하고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문을 잠그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가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다. 거기에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 그리고 생대 행정실 직원과 타 부서 직원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있었다.

소란이 커지자 통합방법상황실인 삼성에스원의 직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상황실 직원은 “교수가 다시 돌아오실 수 있으니 행정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며 “상황이 종결된 상태여서 자세히는 모르나 학장실의 화분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생대 행정실측은 “피해자인 교직원이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행정실 측에서도 사건에 관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해당 교수는 “연구진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실에서 계속 협조하지 않는 이유 대해서 물어본 것 뿐이다”고 말했다.

교수는 당일 상황에 대해서 “다만 말을 나누다 보니 흥분해서 목소리가 커졌고 행정실에 다른 사람들이 많았기에 학장실로 들어가서 얘기했다” 또한 “화가 나서 화분을 들었다 내렸는데 깨진 것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학장실 문을 잠갔다”고 말하면서도 “성명서에 적힌 내용은 과장이다”며 교직원에게 폭력적으로 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동서의과대학에 위치한 교수 실험실의 흥보계시판 공사로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 실험실 연구진은 사업평가 결과 중 ‘흥보계시판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이행

하기 위해 생대 행정실에 공사에 대한 협조를 수차례 요구해 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생대 행정실과 동서의과대학 행정실 그리고 관리팀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다가 결국 해당 실험실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월 8일 공사를 단독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이 날 동서의과대학에서는 대학원생들의 시험이 있었고 소음을 이유로 생대 행정실에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결국 해당 교수가 공사 중단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주호(원자력공학) 국제부총장은 “학교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을 덜어 줄 수 있는 상담 체계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해자와 관련해서는 감사행정원에 사건의 경위와 학교규정을 바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밝혀달라고 부탁하여 조사 중이다”고 했다. 감사행정원 측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진행하는 중이며 11월 중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피해자인 교직원에게 전문 기관과 연결하여 심리 상담과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조합 송혜경 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고 말했다.

### 2017학년도 전기 공공대학원 석사과정 신·편입생 모집

모집분야 및 인원				
과정	모집인원	학과	전공명	학위명
석사과정	113명	정책학과	공공정책전공	행정학석사
		의료관리학과 의료관리학과	간호행정전공 병원행정전공	의료행정학석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노인·케어복지전공	사회복지학석사	
		시민사회·NGO학과	시민사회·NGO전공	시민사회(NGO)학석사
		글로벌기变速학과	글로벌기变速학과	국제개발학석사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기간	2016.10.31.(월)~11.18(금)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기간	2016.10.31.(월)~11.18(금)	청운관 6층 공공대학원 행정실
전형일(면접)	2016.11.26(토) 14:00	청운관
합격자발표	2016.12. 9(금) 14:00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합격자등록	2016.12. 9(금)~16(금)	한나은행 가상계좌로 입금

- 강의
- 매주 화요일/수요일 야간
- 다양한 장학혜택
- 공공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 문의
- Tel. 02-991-9240~1 ● Email pnc@khu.ac.kr ● 홈페이지 http://pnc.khu.ac.kr

### 2017학년도 1학기 국제대학원 석·박사 과정 신입생 모집

모집 분야 및 모집인원	분야	인원
	국제통상법학과	석사 00명
	국제경영학과	석사 00명
	국제개발학과	석사 00명 / 박사 00명

#### ● 지원 자격

- 석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박사과정 : 국내·외 대학교 석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 ● 전형방법

- 국내거주 자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40%), 영어작문시험(20%)

- 해외거주자 자원자 : 서류(40%), 영어인터뷰(60%)

※ 해외거주자 인터뷰는 전화로 진행

#### ● 전형일정

구분	기간
인터넷 접수	2016.10.17.(월) ~ 2016.11.10.(목) 24:00
지원 서류 제출	2016.10.17.(월) ~ 2016.11.14.(월)
국내 거주자 인터뷰 및 영어작문시험	2016.11.26.(토) ※시간 개별 통보
해외 거주자 인터뷰	2016.11.21.(월) ~ 2016.11.25.(금) ※시간 개별 통보
합격자발표	2016.12.5.(월)

#### ● 지원방법 및 제출 서류

- 인터넷 접수 (유웨이어플라이 홈페이지) 후 지원 서류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국제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sp.khu.ac.kr)

#### ● 서류 제출

- 우편접수 : [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로 1732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행정실 [봉투에 ‘입학원서 재증’ 게재]

#### ● 다양한 장학 혜택

- 입학 및 재학 시 성적에 따라 수업료 100~25% 면제

- 한시조교 근무 수업료 전액 면제 가능

- 기숙사 입사자 전원에게 기숙사비 50% 지원

- 기계 과학대학 대상 수업료 일부 지원

- 교내 연구프로젝트 참여 시 수당 지급

#### ● 문의

<li

## 보도

# 초유의 총학생회장 재선 도전... 학생 사회에 파장 예고

## 김병경 회장 사퇴 파문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nu.ac.kr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김병경 회장이 임기를 2달 남기고 사퇴했다. 김 전 회장은 10월 31일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퇴서에서 “올해 배웠던 학우분들의 진심과 보답에 응할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돌아오겠다”며 정확한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냈다.

모호한 내용의 사퇴서를 접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선거운동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사퇴했다’, ‘연임준비 때문이다’ 등 김 전 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다. 총학 집행부원 4명 또한 동반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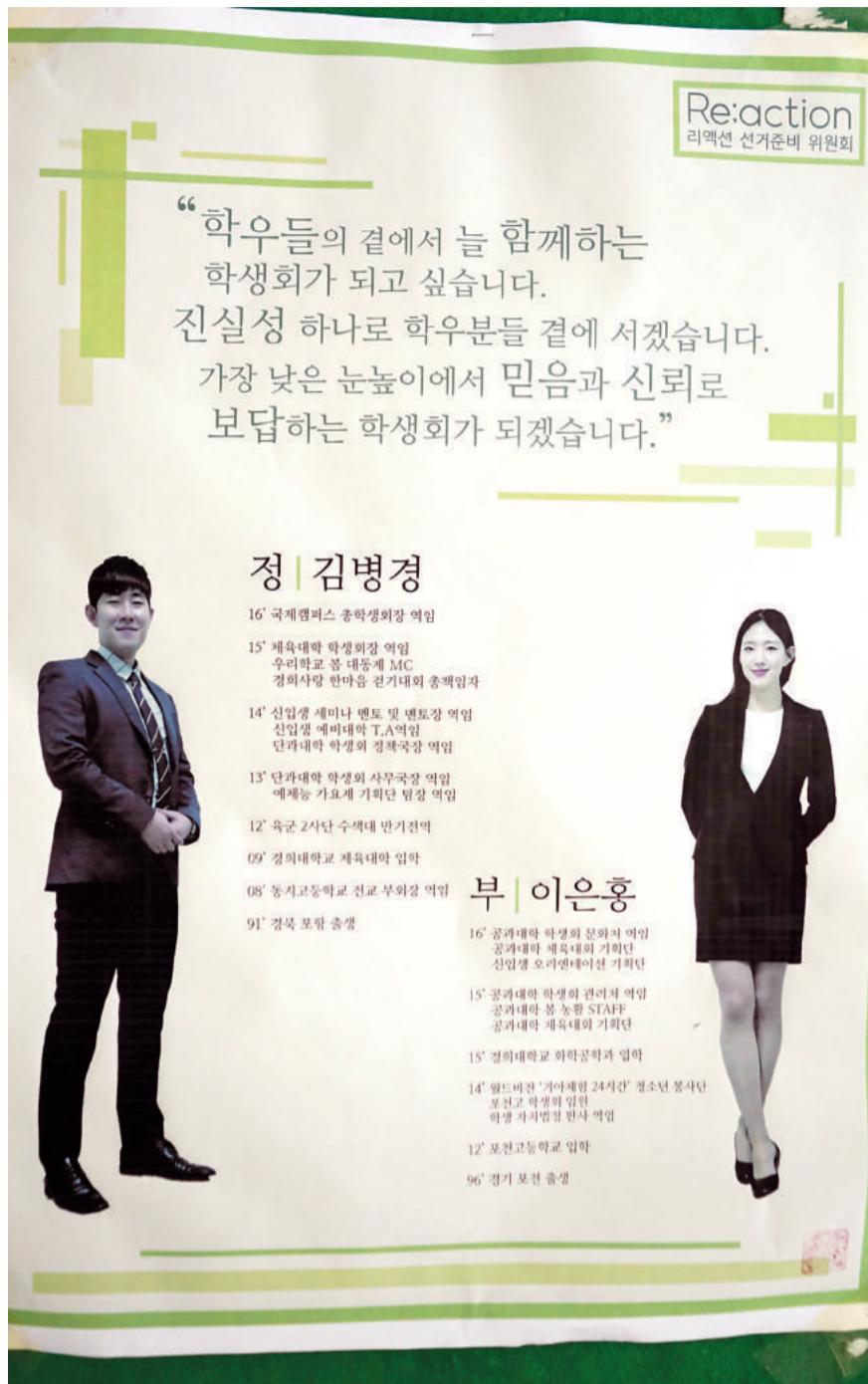
김 전 회장은 실제로 다음날 선거운동본부 Re:action의 정후보로서 49대 총학회장 후보자로 등록했다. 더군다나 후보자 등록 기간은 7일까지로, 기한을 이를 남겨둔 5일 까지도 상대 후보자가 없어 단선으로 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다수의 단과대학 후보자와 함께 선거본부를 꾸려 김 전 회장이 당선될 경우 2017년에는 총학으로 온전히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국제캠 총학생회 회칙(16.05.10 9차 개정안)은 회장직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한편 총학 박수지(산업경영공학 2014)부회장, 조중언(산업경영공학 2011) 학자사무국장이 각각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 역할을 대리해 회장직 공백을 메운다.

## ●훈란 속의 시국선언

국제캠 총학은 비대위 출범 이전인 26일부터 시국선언에 관한 학우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나섰다. 또한 ‘국정 정상화를 위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려 발대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김병경 회장의 사퇴를 고려한 움직임이었다. 총학회장의 업무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장을 맡는 박수지 부회장 대신 총여학생회 이유진(국제학 2015) 회장이 임시로 비대위원장을 맡았고, 이후 조중언 학자사무국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비대위 지도부의 인솔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익명의 A씨는 “비대위원장이 집회 준비에 대해 학우들의 안전을 위한 연락수단이나 깃발과 같은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고, 현 사태에 대한 문제이식이나



“

TF 논의, 교육원, 자치회비 감사와  
같이 이행되지 않은 공약에 대한 우  
려가 있는 가운데 김병경 전 회장은  
공약 이행에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

해결방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지에 의문이 생긴다”며 “시국선언 이후로도 국제캠 비대위 만의 성격을 강조해 서울캠과의 연대 의지가 낮아보인다”고 지적했다. 사퇴한 김 전 회장은 물론 박수지 부회장은 현재 비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비대위의 운영 실태가 총학회장의 주재가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실제로 비대위의 시국선언 관련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시국선언을 이를 앞둔 회의 까지도 ‘정치색은 최대한 제외하여 활동을

진행할 것’, ‘캠퍼스를 구분짓지 않되 운동권 성향 활동과 비운동권 성향 활동을 구분짓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오가는 등 시국선언에 대한 철학을 공유하기보다는 정치적 입장은 고민하는 모양새였다. 발대식과 시국선언 관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 참석인원이 부족해 시국선언 전날인 31일이 돼서야 정식 비대위원장 선출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 또한 보였다.

시국선언 계획이 학생들과 공유되지 않아, 끝내 행사는 조촐하게 이뤄졌다. 비대위 내부의 카카오톡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최종적으로 공지한 것은 당일 오전 3시 51분이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한 외부 공지는 시국선언 1시간 전인 오전 10시 39분에 게시됐다. 이 때문에 학생커뮤니티 상에 “(시국선언 행사) 참여를 원하지만 (비대위가) 장소공지 없이 시간만 알려줬다”, “학생회장이 시국선언 앞두고 사퇴해버리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터이 없었다”는 등 불만 여론이 드러나기도 했다.

## ●남은 공약의 이행은...

시국선언을 제외하더라도 48대 총학이 내건 공약들 중에서는 이행되지 않은 것이 다수 남아있다. ▲TF논의(학사제도·마스터플랜·클린캠퍼스·입학금 문제) ▲교육권 ▲자치회비 감사와 같이 복지 분야 외의 공약에 있어서는 해결돼야 할 사안이 많다. (관련기사: 대학주보 1612호 5면)

특히 48대 총학의 공약들 중에서는 단순 복지 관련 행사는 다수 시행됐지만, 교육권을 위한 학교 측과의 협의, 기숙사 시설 개선, 이원화 문제 해결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공약들에 집중돼 있어 총학회장의 역할은 여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편 아직 박수지 부회장이 주재한 중앙운영위원회·학대운영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주이를 지켜봐야 할 상태다.

김 전 회장은 이전 인터뷰 당시 임기 내에 공약 해결을 위한 회의들이 많이 남아있다며 공약 이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26일 등록금 책정위원회에서 ▲체육시설 온라인 대여시스템 구축 ▲도서관열람실 24시간 개방 ▲‘입학금반환운동’에 대한 학교 측 입장 ▲기숙사 심야시간 출입제한 ▲학생식당 개선TF ▲학생회관 소극장 보수를 위한 추가 예산편성에 대해 요구했고 대부분 차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됐다. 김 전 회장이 사퇴한 지금부터 이후 회의부터는 박수지 부회장이 이어받아 진행할 예정이다.

으로, 학교 측과 협의를 이끌어낼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퇴 이후 김 전 회장은 “중요한 회의 중의 하나인 등록금책정위원회에서의 안건 배부, 향후 TF 운영 등에 있어 총학회장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토대를 마련한 상태다”며 “공약 이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공약 이행에 대해 신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연임에 관한 회칙 비교

총학회장의 연임이 이슈가 된 것은 비단 우리학교의 일만은 아니었다. 총학생회장의 연임으로 인해 학교 측과 학생회 간의 갈등이 빚어진 사례도 있다. 실제로 대전대학교에서는 2009년 총학이 자체적으로 회칙을 개정해 연임을 시도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인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에 동조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해당 총학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제적을 의결하는 등 크게 갈등이 일었다.

연임에 대한 내용이 회칙에 명시된 경우도 있다. 건양대학교에는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시행세칙’ 2장 5조(교선기권) 5항에 정·부 학생회장은 재출마 또는 연임할 수 없다고 제시돼있다.

우리학교와 같이 선거세칙에 연임이 명시되지 않고도 총학회장을 연임한 사례도 있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안암캠퍼스에 2009년도, 세종캠퍼스에 2015년 연임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고려대학의 경우 선거 관리위원회를 중운위에서 중운위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출하도록 되었다. 중선관위장이 총학생회장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국제캠의 중선관위는 총학생회장이 맡게 되는 중선관위장을 맡게 된다. 현재 총학회장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박수지 부회장이 다음 중선관위장을 맡게 되는 이유다.

서울캠 역시 국제캠과 중선관위 구성은 유사하지만 회칙 28조(참여위원회) 1항(선출방법)에서 중선관위 각 구성원의 1/5정도를 할당하여 참여위원을 선출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국제캠에는 선거시행세칙 8조(구성)에서 각 선관위장이 별도의 선관위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있어 학생들의 참여를 받지 않고 선관위장이 일괄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국제캠에서 총학회장의 연임의 시도가 이뤄진 이상 선거세칙의 개정을 통해 유착관계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과목 확인	2016.11.01(화)	본교 홈페이지 회사안내 게시판에 ‘2016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기표 공지’ 참조					
단대학 소속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2016.11.22(화) 17:00 까지 경희대 학번부여: 2016.11.29(화)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6.12.14(수) 10:30 ~ 12.15(목)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개정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6.12.15(목) 12:00 ~ (화) 2016.12.21(수) 09:00 ~ (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6.12.16(금) ~ 12.20(화)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신청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6.12.21(수) 09:00 ~ 17:00	후미니티스킬리지 행정실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6.12.22(목) ~ 2017.01.12(목)						
성적열람(정정)일	2017.01.16(월) ~ 01.17(화)						
2. 수업안내 가. 수업시간							
구 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 분	학점	교시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 ~ 11:50	국제 캠퍼스	1학점 / 3학점	온라인강좌	
		2교시	13:00 ~ 14:50				
	2학점	1교시	10:00 ~ 11:50		3학점	1교시	09:00 ~ 11:45
		2교시	13:00 ~ 14:50				
	3학점	1교시	09:00 ~ 11:45		2교시	13:00 ~ 15:45	
		2교시	13:00 ~ 15:45				

나.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6.11.01(화)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 3. 수강신청

가. 수강 가능 학점: 최대 6학점

1) 학점교류, 국제교류처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연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과 동시에 수강 가능  
2) 단 수강 가능 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나. 수강신청 방법

1) 정규학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 (학점교류생 등)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 후미니티스킬리지 행정실

4. 수강등록			
가. 등록금액: 1학기당 89,000원			
나. 등록방법: 본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장학→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인내] 참조			
1) 입학: 학년(2016학년도, 학기)→ 등록/장학→ 경희대학교에서 부여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2) 확인: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다. 납부방법: 상부 천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평균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금 납부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등록금 납부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6.12.21(수) 17:00	전액 환불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6.12.22(목) ~ 12.28(수) 17:00	수강료의 2/3환불	
수업개시일 1/3 경과 날부터 1/2 경과 전	2016.12.29(목) ~ 2017.01.02(월) 17:00	수강료 1/2환불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수강 취소 불가)		

※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비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6. 유의사항

가.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이상  
나. 전공강의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다. 2016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라. BO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마.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번호는 하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바.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지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미니티스킬리지 행정실 방문  
사. 계절학기 수강은 출입 전 통



## 보도

# 시간강사 처우 개선 TF, '사과' 벽에 막혀 제자리

- 대안1. 유명무실 시간강사규정 개정통해 '학기 제한' 폐지  
 대안2. 연속 학기 위촉 강사에게 와이파이, 중앙도서관 이용 허용  
 대안3. 전체 대학 평균 수준의 시간강사 강의료 인상

## 후마니타스칼리지 시간강사

김도엽 기자 wogmd567@knu.ac.kr

#. 우리신문은 올해 2월, 작년 12월 24일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시간강사 45명이 '교과과정 개편을 이유로 강의 비개설을 알리는 미위촉 통 메일을 받았으며, 교과과정 개편에 시간강사 의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도했다. 올해 5월에는 전임교원, 객원교수, 시간강사를 포함한 후마니타스 교육자협의회(교협)에서 시간강사 처우개선 TF운영을 하자는 제안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해촉 통지 사건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의 발단이 될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하였다. 현재 해촉 통지를 받은 45명 중 한 명인 채효정 시간강사는 청운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집회(강의실 밖 수업)를 열고 있으며, 12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5월에 제시된 TF는 현재까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으며, 곧 논란의 '해촉' 통지 발단이 일어난지 1년이 된다. 우리신문은 후마 유정완 학장과, 채효정 시간강사를 각각 만나 상이한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양 측의 입장은 후마 측의 TF구성 논의 조건인 '강의 미위촉에 대해 근거 없는 부당한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할 것'부터 상이하다.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모든 인터뷰에서 "근거 없는 정보를 언론사에 투고했으므로 학교에 손실을 입혔다"며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기 전까지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 강사는 "공개 사과는 노동 탄압이며 대학에서 있을 수 없으며 할 수 없는 요구다"라며 "부당한 정보를 언론에서 보도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해당 언론사에 반론권을 요청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 논란은 채 강사가 올해 5월, 9월 지방 노동위원회(지노위)-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학교 측의 부당해고'에 관해 구제신청을 하며 계속 이어졌다. 2번의 노동위의 핵심은 '시간강사규정'이었다.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 제 3조에는 ▲1항.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항. '본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적 중이며 2학기 이상 수료한 자' 등이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우리학교 정치학 박사 과정으로 2학기 이상 재학한 채 강사는 2항 조건에 해당되며 시간강사로 위촉될 수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제 7조에 있다. 7조 1항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단위로 하되'라고 밝히고 있고, 2항에는 '연속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2항에도 불구하고 3항은 '박사학위 소지자, 타 대학 전임교원 등, 사유서를 첨부하여 별도로 결재를 득하면 4학기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속하여 최대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채 강사는 7조 3항과 같이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닌 아직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박사 수료 상태'이다. 결국 후마 측은 7조가 명시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채 강사에게 4학기를 초과하여 수업을 배당함으로써 스스로 규정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다. 채 강사는 "당시 중노위를 준비하며 4, 8학기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지만 학교는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고 이미 많은 시간강사들이 4학기를 초과해 강의를 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채 강사는 "이 조항은 학교에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어길 수 있는 조항이고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게 강의를 맡겼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학장은 "엄밀히 따지면 나와 전임 학장이 세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은 맞다"라며 "하지만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타 학교에서도 관례상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지노위-중노위에서는 채 강사가 제기한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더불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화해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채 강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하라는 판결이 났지만 이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지닌 판결이 아니다"라며 "부당 해고라는 진실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유정완 학장은 TF운영을 위해 채효정 시간강사의 공개사과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효정 시간강사는 공개사과는 결국엔 후마에 굽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지난 5월 교협에서 제시한 TF에 관한 논의는 앞으로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양 측의 입장이 아직까지 상이하고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경우 법적인 차원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신문은 지난 보도에서 <관련기사 : 1603호 3면>, <관련기사 : 1607호 7면> 대학본부 측이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해왔다. 채 강사 또한 "여기서 공개 사과를 하게 되면 결국엔 굽복하게 되는 것이 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 강사와의 갈등이 아닌 더 많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미 당시자인 유 학장

논란은 채 강사 한 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2016년 2학기 기준 우리학교의 871명 시간강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간 유 학장은 이번 인터뷰를 포함한 지난 인터뷰에서도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유 학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양 측의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모든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힘써야 할 TF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학본부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채 강사와의 갈등이 아닌 더 많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이미 당시자인 유 학장

한 공감한다고 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우리학교 '시간강사규정'이다. 제10조(해촉)에선 '시간강사는 강의하는 학기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채 강사는 "2학기 기준 11월 말 혹은 늦어도 12월 초까지 통보를 해줘야 다음 학기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통보하지 않아도 되니 시간강사들은 다음 학기 위촉 여부를 알 수 없는 채 강의 종료 전 학교 측에 문의를 하고, 타 대학의 시간강사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 또한 문제가 된 제3조(4학기 규정), 제7조(8학기 규정)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채 강사의 사례와 같이 이미 후마 측은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조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의 직종으로 분류, 2년을 초과하여 고용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구분돼 사실상 4학기 이상 고용이 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별도로 초과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기존 시간강사에게 적용하던 4학기, 8학기로 제한하던 기간을 폐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난 번 보도에서도 밝혔듯이 학기 종료와 동시에 중지되는 교내 와이파이 이용, 중앙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이다. 규정에서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 단위로 하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라고 밝히고 있다. 시간강사 중 다음 학기 강의를 위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하계·동계 방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교내 중앙도서관을 이용해 다음 학기 강의를 준비 혹은 교내 와이파이조차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전체 대학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내 시간강사 강의료(대학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2016년도 우리학교 : 50,721원, 전체대학 평균 : 55,000원), 강의료 준비 공간 부족 등이 있다.

이미일 '해촉'통보가 이뤄진지 곧 1년이 된다. 이 기간 동안 결국 양 측의 상이한 입장만 다시 확인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1학기 TF 요구를 받아들여 처우 개선에 힘썼다면 당장 이번 2학기 시간강사들에게 적용할 수도 있었던 시간이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11월 둘째 주(11.07~11.11)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취업·진로 준비!! 취업진로지원처와 함께 하세요.'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KB금융권 설명회	11.07(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청년취업카데미-비캐리풀리처처장 설명회	11.08(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증인기업 히든챔피언 설명회	11.09(수) 14:00~16:00	청운관 B117호	
이랜드 외식사업 채용설명회	11.09(수)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국내외 항공사 채용면담	11.09(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해외취업과 대우의 Global YBM(박정숙)	11.09(수) 11:30~13:30	청운관 B117호	취업특강

◆ 참가방법 : 사전 신청 필수(현장 당일까지 가능) 종합 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 신청 후 학점여부 표기되는 하지 않습니다.

※ 사전 신청 학생 및 담당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자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쪽에 비치 함.

◆ 출석 협조금 발급 :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불급 및 배부

- 각 시장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レン더 참조

### 2. 취업진로지도 및 콘설팅 (취업상담)

상담유형	일시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이연희(온상증)	오피스홀 354호, 356호	
상담	(전문 컨설턴트)	박언경	제법학관 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멘토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담 대상자 의무 : 취업준비 면담자(면담자와 면담자) 출입문지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상담 전·후 각 1회(총 2회) 필수

### 3. 모의면접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면접관 : 이연희(온상증), 박언경, 홍상기

분류	일시	면접관	장소	신청방법
모의 면접	11.09(수) 16:00~18:00	박언경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 4. 중간기업 히든챔피언 바로 알기 설명회

◆ 대상 :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일시 및 장소 : 11.09(수) 14:00~16:00 / 청운관 B117호

◆ 상세내용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또는 취업진로지원처 전화 문의(02-961-0167~8)

◆ 자체현장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kn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n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n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서류 제출 기한  
 2016.12.01(목) ~ 12.09(금) 17:00까지
2. 접수방법  
 종합정보시스템(인터넷 신청)·연수 신청·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의 내용 작성 및 신청(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방문 후 서류 제출(청운관 208호))

### 3. 면제기준 및 자격

교과 출석제 평가 학과 평가 지지수(2016학년도 2학기 기초교양(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참고)

### 4. 유의사항

기. 2016-2학기 현재 해당과목을 수강중인 자, 학점포기자는 신청할 수 없음

나. 본 제도는 일정정보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하지 아니함

다. 신청자격이 있다더라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5. 기초교양 이수면제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2014~2010학번으로 2016-2학기 재학생

#### 2. 이수면제과목

기. 기초교양(핵심교양) 글쓰기 (2004~2010학번 해당)

나. 기초교양(핵심교양) 대학영어 (2004~2007학번 해당) 또는 English Reading & Discussion (2008~2010학번 해당)

다. 기초교양(핵심교양) 전공영역 (2004~2007학번 해당)

라. 기초교양(핵심교양) 전산영역 (2004~2007학번 해당)

### 6. 기초필수 영어1, 영어2 이수면제 신청 안내

#### 1. 신청대상

2011~2015학번으로 2016-2학기 재학생

#### 2. 이수면제과목

기. 영어1

나. 영어2

### 7.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 1. 신청대상

</

# 대학이 나서야 독도를 지킨다

전문가 칼럼



고창근  
독도아카데미  
집행위원장

일본의 독도침탈 전략이 전 방위로 나타나고 있다. 문부과학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학생 대상의 다케시마 정신교육, 독도를 탈환 대상으로 명시한 방위청 방위백서 발간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펼치는 일본령 다케시마 흉보 및 국제재판소 제소를 통한 독도의 분쟁지역화 획책 등 조직적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본중의원의 일본령 다케시마 영유권결의, 장기적 독도탈환을 염두에 둔 일본총리의 노골적 다케시마 교육 강화 지시는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총력 전에 대비해 우리는 정부뿐 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혜를 모으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독도영유권에 대한 걱정이나 수호 활동은 학생이나 시민단체 등 민족들이 앞장서 고군분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일본의 도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 일본에 전방위적 다케시마 교육 우리나라는 재정과 인력 부족

이제는 대학이 독도주권교육을 통해 나설 차례다. 약 3백만 조직구성원을 보유한 국내 대학은 지적 인프라, 재정능력, 그리고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대학에서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채택함으로서 많은 대학생들이 우리의 독도영유권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독도에 관해 논리적으로 무장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학생들이 왜곡된 역사, 왜곡된 다케시마 교육을 배우고자 자란 일본의 차세대들과 당당히 맞서게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독도문제에 대해 국가의 예산투입이 없어도 일본을 이길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이뤄졌던 시도별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의지 여



하에 따라 산발적, 한시적으로 시행되어 온 초.중.고 대상 독도교육으로는 더 이상 일본의 전 방위적 다케시마 교육에 대처할 수 없다.

고종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칙령을 발동해 독도를 울릉도 부속도 서로 편입 확정하고 조선의 독도영유권을 선포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1905년 2월 22일, 일본제국주의는 무주지 선점이라는 명분을 세워 독도를 일본령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 Takeshima)란 이름으로 편입해 버렸다. 이때 그들이 기록한 'Takeshima'란 이름은 1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공공 기관 및 각종 출판물의 80% 이상을 점유한 상태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장기적 독도침탈 전략에 대비하는 대학의 소명은 무엇인가? 두 말할 것 없이 독도수호의지 양성과 일본이 전 세계의 공공기관 및 각종 출판물에 기록해 놓은 Takeshima란 표기를 우리의 Dokdo로 교체하기 위한 실천 작업이다. 출판물의 표기를 고치기 위해 출판계의 큰 고객 중 하나인 대학이 나서서, 대학의 브랜드와 권위로 전 세계의 학계, 언론계, 출판계를 상대로 장기적인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해외 유학생들도 소속대학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중 Takeshima 표기에 대해 대학신문과 인터넷을 통하여 대학당국에 강력히

향의하고, 독도로 교정된 서적을 반입할 수 있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회적인 이벤트성 독도 캠페인보다는 독도표기획과 뿌리내리기 작업이 급선무다. 일본은 다양한 루트로 'Takeshima' 명칭의 변경을 경계하고 관리하고 있다. 독도문제가 국제 분쟁화 되었을 때 Takeshima 표기점유 상태는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 문제에 주목하여, 필자가 몸담고 있는 독도아카데미는 2006년 창립 이래 국내대학 도서관은 물론 미국의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UCLA, MIT 등 유수의 대학도서관과 보스턴, 뉴욕 등 공공도서관에서의 Takeshima 표기 상태를 직접 검색하고 눈으로 확인하여 그 실태를 언론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2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린 IHO 국제수로기구 총회에 독도 아카데미 교수진들이 참석해 일방적 Sea of Japan 표기 결의를 저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 역시 당시 내외신 언론을 장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시민단체의 역할과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다. 문제를 이슈화하고 선도할 수 있어도 의제를 꾸준히 유지하고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끝기기에 재정과 인력이 매우 빈약하다.

독도아카데미가 10여 년간 국비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 배출한 "독

도아카데미" 수료생들은 5천여 명에 불과하다. 예산의 제약과 비영리 시민단체가 갖는 태생적 한계성 때문이다. 반면 국내 대학생은 약 3백만 명에 달한다.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이제 10년간 지속해 온 독도교육에 대한 공신력과 공의성을 바탕으로 뜻있는 대학, 의식 있는 대학과 손잡고 독도교육의 커리큘럼화, 공론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독도주권교육을 교양 또는 선택과목으로 대학당국이 채택 할 수 있게 본 단체가 소유한 모든 교육적 자산을 제공할 예정이다.

## 대학에서 '독도 주권 교육' 필요

우리는 대학캠퍼스에 새로운 독도 교육의 바람이 불게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대한제국의 멸망과정과 일본의 독도침탈과정, 독도의 전략적 가치, 독도영유권의 국제법적 근거, 일본은 왜 독도를 노리는가?, 일본의 독도침탈 6단계 전략 등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이 캠퍼스에서 우리 대학생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독도는 대한독립의 상징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선각자들의 경구를 되새기며 우리 경희대 학우들의 독도사랑, 독도교육운동이 온 대학가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 참여마당

김윤모  
(국어국문학 2016)



## 살을 에는 추위 일지라도 작은 온기에 감사 하길

영하로 빛고 한없이 내려가는 겨울의 냉기는 나를 괴롭게 한다. 숨만 쉬어도 내 몸 안의 숨결을 액화해버리는, 따뜻한 숨을 이내 차가운 입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겨울이 알맙다. 고요한 주변에 온 세상에 나만 있는 듯, 침전하는 분위기의 눈이라도 오는 날은 너무 좋지만 이내 곤 찬 바람이, 아니 '칼바람'이 내 온 얼굴을 긁고 지나간다. 피부 속 세포까지 찢어 벌릴 것 같은 그 찬기가 너무 싫다. 나를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 코와 귀는 점점 빨갛게 변하고 코에서 자꾸만 흐르는 콧물은 내가 콧물인지 콧물이 나인지 알 수 없게 할 정도로 혼을 쑥 빼놓는다. 눈알까지 차가워진 채 냉동실의 동태가 이런 기분일까 하는 심정으로 겨우 현관문을 연다. 그 순간, 따스한 공기가 나를 온몸으로 반겨준다. 그 온기는 안경의 김 서림으로 가시화되고, 온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극대화 된다.

김 서림은 나에게 감사 그 자체이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약 13도 이상 차이 나기 시작하면 안경에 김이 서린다고 한다. 불과 몇 초 전 바깥의 나와 집에 들어온 내 온도 차이가 무려 13도 이상이라는 것이다. 내가 방금 전의 나보다 13도 더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할 따름이다. 안경에 서린 김 때문에 앞이 안 보인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그 이슬 하나하나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 행복감도 극대화 된다.

온기는 나에게 안정감을 준다. 그 온기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감쌌던 것이고, 동생을, 집 안의 화초를, 우리 집 금붕어를 품어주고 내 방의 다육이까지 따뜻하게 안아준 다음에야 비로소 나에게 온 것이다. 나에게 따뜻함을 전해준 온기는 온전히 나만의 온기가 아니다.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가끔 찬바람이 심한 너무 추운 날, 거리를 걷다 잠시 바람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 안쪽으로 들어가곤 한다. 정류장의 칸막이에 의지하여 임시방편으로 바람을 피해보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는다. 그곳에서 서 있으면 추위를 피할 안식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되새기곤 한다. 현관문만 열고 들어어서면 온기가 맞아주는 집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한다.

지금 내 현실과 이 세상이 살을 에는 추위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한기를 뉙여줄 온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막상 온기를 찾아나서기보다는 한기에 불평, 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추위가 어디서 왔든 어느 정도로 춥든 한파가 찾아온 이상 내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온기를 찾아내어야 한다.

"주변의 것에 감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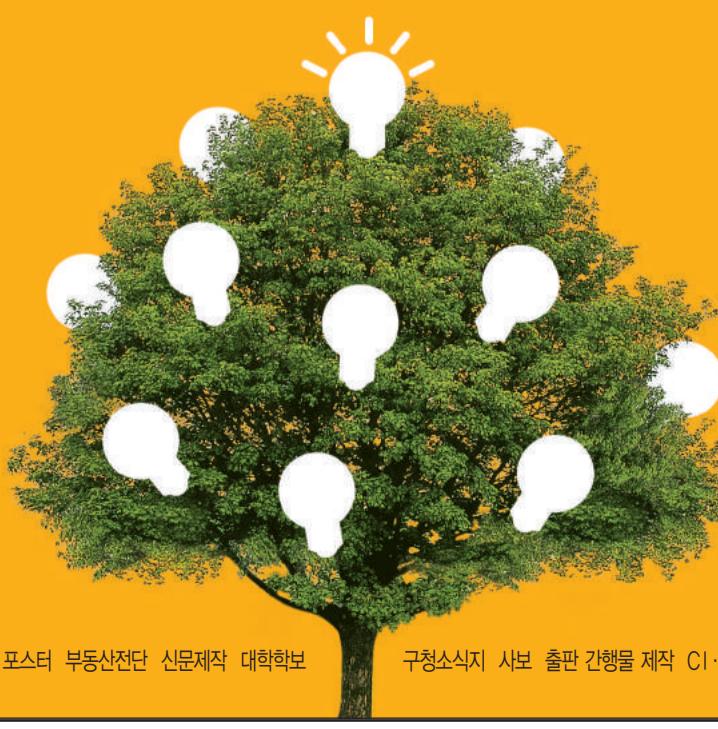
너무나도 뻔한 말이고 실천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를 내 가슴과 내 머리에 새기며 내 걸음 걸음을 뒤돌아보면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꽁꽁 얼어붙은 땅도 서서히 녹이는 힘이 아닐까 싶다. 춥다고 웅크리지만 말고 주위의 것에 집중하여 작은 소중함을 찾아보자. 그러면 내가 내쉬던 한숨에는 어느덧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 것이다. 내가 내쉬는 숨이 나를 뉙여줄 온기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 보도

# 최근 5년간 전학대회 성사 단 3번뿐 … 누구의 책임인가?

##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류제원 기자 jennyoo95@knu.ac.kr

【서울】 학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체 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총학생회(총학)에서 소집하지 않거나, 소집을 해도 대표자들이 참석하지 않았거나, 혹은 참석했더라도 중간에 이탈했기 때문이다.

총학 회칙에 따르면 전학대회는 매 학기 초에 소집돼야 한다. 그러나 서울캠퍼스(서울캠)에서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열려야 했던 10회의 전학대회 중 실제 안건의 결까지 진행된 것은 3회뿐이다. 소집이 이루어졌던 7번 중 2번은 재적인원의 50%인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최조차 되지 않았다. 정족수를 충족해 개최할 수 있었던 5번 중 2번은 회의 도중 대표자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안건의 심의·의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 우리학교 학생회 대의기구 전학대회, 학운위, 중운위

전학대회와 확대운영위원회(학운위), 그리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우리학교의 대의기구다. 전학대회는 총학의 가장 큰 의사결정기구로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학운위는 총학의 의결, 운영기구로, 총학의 활동방향성과 사업계획, 사업보고를 심의해 전학대회에 상정한다.

마지막으로 중운위는 총학의 최고운영기구로서 제반 사업을 검토·조정·심의해 학운위, 전학대회,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즉, 중운위와 학운위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학대회의 하위기구다. 성원 역시 전학대회가 가장 많으며 이어 학운위, 중운위 순이다. 따라서 각 기구가 갖는 대표성의 정도도, 다뤄야 할 안건의 중요성도 모두 다르다.

그동안 총학에서는 정족수 부족으로 전학대회가 개최되지 않거나 도중 이탈로 표결을 진행할 수 없을 때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 안건보고만 진행하거나 안건을 학운위, 중운위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했다. 지난 2015년 1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개회 후 참석자들의 이탈로 표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자 그 자리에서 임의로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143/157) 하위 의사결정 기구에 안건을 위임하기로 결정했



다. 해당 안건은 학운위로 위임됐다. 2015년 2학기 전학대회는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임시전학대회로 전환된 바 있다.

## 최고의사결정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정족수도 못 채워 열리지 못해

이처럼 전학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전학대회에서 다뤄지기로 예정된 안건을 다른 의사결정기구에 위임하는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는 학칙에 명시된 바 없다. 다만, 서울캠 총학 회칙 제 12장 제 3조 '본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단, 이로 인하여 중요한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회의의 의결방식에 따라 결정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이다. 회칙 제 6장 제 33조 확대운영위원회의 조항 역시 5항 8호에서 '전학대회에서 위임받은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고만 나와 있을 뿐, 그 방식은 언급돼 있지 않다.

또한 임시전학대회에 대해 회칙 제 32조 7항 2호는 '임시전학대회는 의장 또는 재적인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기전학대회 이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임시전학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정기전학대회를 임시전학대회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순 없다. 하지만 그간 임시전학대회는 정기전학대회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출석한 대표자들에게 보고안건을 전달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대체 되어 왔다. 2012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의 전학대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그동안 총학생회에서는 전학대회 성원 미달 시 '관례대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학운위에 의결을 위임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관례적인 임시 전학대회 대체 '주먹구구식' 진행으로 비판 대상

실제로 이번 학기 전학대회도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관례에 따라 임시전학대회로 대체하고자 했다. 그러나 참석자 중 김종휘(통번역학 2011) 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안건을 보고하나"라며 "총학은 그동안 회칙에도 없는데 보고안건을 진행해왔나"고 항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총학 회칙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전학대회에서 정족수를 못 채운 경우가 4번이나 되므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군은 "그동안 전학대회에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관례대로 처리해왔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특히 하위기구에 의사결정 업무를 위임할 시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학대회가 수년째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관례'라는 명목 하에 처리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안건을 학운위에 위임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보고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전학대회를 여는 것도 그들의 절차적 편의를 위해 자행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일의 '관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칙이 필요하다. 회칙은 총학이 임의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최근 5개년 전학대회 출석률 50%채 되지 않아

전학대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총학의 임의로 임시전학대회로 진행하거나 하

위의사결정기구에 안건을 넘기는 것 못지 않게 대표자들이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대표자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대표해 총학의 업무를 감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전학대회 출석률은 최근 5년간 평균 50%가 채 되지 않는다. 지난 10월 4일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3학년 대표는 "전학대회 모집 공지를 하루 전에 받아 타 행사와 겹쳐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과의 부학생회장은 "암묵적으로 3·4학년 대표는 전학대회에 안 가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은 그동안 수차례 전학대회에 출석하지 않은 대표자들의 문제를 언급해 왔다. 지난 2009년, 그간 성원 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전학대회가 3년 만에 열린 것을 지적한 데 이어(서울캠 3년 만의 전학대회 … 열띤 질의 오가/대학주보 온라인, 2009.4.3) 이듬해인 2010년 1학기 또다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학대회 '불발', 대표자 책임감 부재에 불만 제기/대학주보 온라인, 2010.4.30) 뿐만 아니라 2013년(전학대회, 총여 비대위 인준 부결 중도 이탈로 주요 안건 의결 못해/대학주보 온라인, 2013.4.7), 2015년(회의 중 성원 이탈… 자치회비 분배 의결 못한 '전학대회'/대학주보 온라인, 2015.4.3)엔 대표자들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이탈해 심의·의결 안건을 다루지 못하면서 학운위에 위임하는 행태에 대해 권위와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처럼 전학대회 성원 부족은 우리 학교의 고질적인 문제다.

## “총학생회 – 전학대회 상호 견제와 균형 이뤄야”

박호성(국제평화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총학생회가 행정부라면 전학대회는 일종의 국회이고 두 기구가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뤄야 한다"라며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7학년도 총학을 결정하는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올해 단 한 번도 전학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현 총학에게, 그리고 차기 총학 선거를 준비하는 선거본부에게도 전학대회 성원 문제는 중요하다. 전학대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창구인 만큼, 이를 지키기 위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2016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7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8회째 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

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6년 9월 30일(금)~11월 8일(화) 17:00

● 대상 : 교수, 교직원, 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 시상인원 : 분야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첨부한 공적서 작성 후 추천 (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3. E-mail : pr@kn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2016년 12월 중 〈Magnolia 2016-1부 목련회의〉시 시상

● 문의 : 대외협력처 홍보실 02) 961-0023~6

